

현대차 노조 “파업보다 실익”, 기아 노조 “상견례 전 총파업”

현대차그룹 ‘임단협’ 엇갈린 행보
기본급·성과급 인상 등 요구
현대차 노조, 내달 상견례 가져
기아, 31일 주·야 4시간 총파업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한 지붕 두 가족인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다음 달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앞두고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파업 투쟁’에 나서기보다 ‘실익’에 집중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는 반면 기아 노조는 상견례 전부터 전국금속노조 총파업에 동참할 것을 예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지난 24일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관련 설문조사 자료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노조가 지난달부터 최근



지난해 임금협상 상견례 갖는 현대차 노사.

까지 조합원 5564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안전 우선순위를 정해달라는 질문(3가지 이하 복수 응답 가능)에 조합원 2994명(54%)이 ‘상여급 800% 요구’를 선택했다. 이어 성과급 지급 기준 수립(2551명), 각종 수당 현실화(2268명), 정년 연장(2259명)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임금 인상 요구액은 ‘시장 현황

과 회사 실적을 반영한 금액’을 선택한 비율이 57.2%를 기록했다. ‘금속노조 지침을 준수한 18만4900원’을 선택한 비율은 29.1%로 나타났다.

올해 투쟁 방향은 ‘각 지역과 사업부 실정에 맞게 투쟁’이 27.6%를 기록했다. 이어 ‘8시간 혹은 하루 전면파업’은 24.5%, ‘4시간 이내 부분파업을 여러 날 전개’는 10.9%, ‘전 조합원 울산 집

결 대형 투쟁’은 11.9%로 집계됐다. 반면 ‘임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파업을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도 24%를 기록했다.

노조는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 해 임단협 요구안을 이날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다. 기본급 18만4900원(호봉 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를 성과급 지급, 전기차 신공장 관련 인력 운영 방안 마련 등이 요구안에 담길 것이라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현대차 노사는 다음달 1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임단협에 돌입할 예정이다.

기아 노조는 오는 31일 금속노조 총파업 지침에 따라 기아차지부도 주·야 4시간 총파업에 돌입한다. 사측과 교섭 계서를 위한 상견례도 시작하기 전부터 금속노조의 파업 지침을 따르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기아가 전기차 시장공략을 위해 내놓은 핵심 모델인 EV9 공식 출시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생산 지연이 우려

된다.

또 기아가 최근 판매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적체물량 해소를 위해 국내외 공장을 풀가동하는 상황인 만큼 총파업에 따른 생산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아 노조는 지난해와 올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만큼 최대임금과 최대 성과급을 요구할 전망이다. 특히 기아노조도 정년연장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매년 정년연장을 요구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만큼 이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기아 노조는 “최대 실적에 걸맞은 최대 임금과 최대 성과급 쟁취를 최우선으로 하고 올해 임금 및 별도 요구안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노조답게 승리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포스코인터, 철강 등 2차 수출 확대 나서

‘아시아 성장전략회의’ 개최

2차 시장 3년간 연평균 31% 성장세

지난 4월말까지 우리나라의 무역적자가 14개월 연속 지속됨에 따라 포스코인터내셔널(이하 포스코인터)이 아시아 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선다.

포스코인터는 25일 태국방콕에서 정략 부회장을 포함한 아시아 17개 조직(무역법인 및 지점 10개, 지사 4개, 투자법인 3개) 임직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시아 성장전략회의’를 개최했다. 포스코인터는 중국, 일본을 제외한 호주, 미얀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을 아시아로 분류한다.

포스코인터가 아시아에서 전략회의를 개최한 배경에는 아시아는 최근 중

국 리스크 확대 속에서 급부상하는 사업장이다. 이 지역은 회사 글로벌 사업 부문 트레이딩 실적의 32% 비중을 차지한다.

포스코인터 철강사업 부문의 지난해 중국 수출 실적은 전년(2021년) 대비 4% 감소한 14억 달러에 머물렀다. 그러나 아시아 수출은 지난 3년간 연평균 31% 성장세를 보이며 지난해 기준 매출 30억 달러를 기록해 주요 수출 시장으로 부상했다.

포스코인터는 이번 성장전략회의를 통해 아시아 내 철강, 에너지, 식량 등 주요 사업을 점검하고 고객을 밀착 관리해 수출 확대를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먼저 철강사업은 올해 전체 철강 수출물량 1100만톤 중 25%에 해당하는 280만톤 이상의 수출 목표를 아시아에

서 달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현지 조달이 불가능한 포스코산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 확대를 통해 세일즈 믹스를 개선한다. 또 포스코 해외법인을 활용한 아시아산 제품 소싱도 다변화한다. 이와 함께 최근 아시아 내 친환경 움직임에 따라 대체에너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태양광, 풍력, 모빌리티 등 친환경 산업용 강재 마케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략 부회장은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무역전문가 집단인 포스코인터가 책임감을 가지고 뛰어와야 한다”며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아시아 시장 수출 확대 방안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성운 기자

KT, 신규 RU 상용망 기술검증 완료

(5G·LTE 안테나 결합)

스웨덴 에릭슨과 공동 개발

KT가 5G와 LTE 안테나가 결합된 신규 RU(Remote Unit)의 상용망 기술검증(PoC)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검증을 통해 실제 사용 환경에서 성능저하 없이 5G와 LTE 통신 커버리지 제공이 가능함을 확인했다.

KT는 기지국 설치에 큰 걸림돌인 건물 옥상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 3월부터 에릭슨과 5G와 LTE 결합 신규 RU 개발 논의를 진행해왔다. 작년 11월에는 스웨덴 에릭슨 연구소에서 신규 RU를 이용한 기술 시연을 선보였다.

신규 RU는 LTE 안테나 뒷면에 5G 안테나를 배치해 5G 신호가 LTE 패시브 안테나를 통과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안테나가 차지하는 공간이 줄어들어 동일한 건물 면적에 더 많은 LTE, 5G 안테나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KT는 이번 검증에서 5G 커버리지에 영향을 주는 ‘빔포밍(Beamforming)’



KT 임직원이 상용망에서 결합형 RU의 품질 상태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 /KT

성능 감소 현상을 해결하고자 했다. 이에 KT는 5G 신호가 LTE 안테나를 간섭없이 통과하여 전송되는 ‘빔 스루(Beam Through)’ 기술을 적용해 안정적인 성능을 최종 확인했다. 이번 검증 성공으로 결합 신규 RU 상용화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됐다.

KT 네트워크연구기술본부장 구재형 상무는 “이번 에릭슨과의 PoC를 통해 5G 커버리지 확대와 효율적인 5G망 진화 및 6G 장비 도입을 위한 기반을 확보했다”며 “이를 통해 KT의 5G 서비스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채윤정 기자 echo@

현대모비스

‘HD 라이팅 시스템’ 개발

현대모비스가 주행 정보를 전방 노면에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차세대 헤드램프 개발에 성공했다고 25일 밝혔다. 운전자와 보행자 야간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모비스가 개발한 ‘HD 라이팅 시스템’은 주행정보를 글자나 도형으로 시각화하고 노면에 투영하는 기술이다. 운전자에게는 전방에 ‘공사중’ 상태를 기호로 알려주고 보행자에게는 횡단보도 표시를 램프 빛을 통해 노면에 구현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도와준다.

현재 주행정보를 알려주는 안전편의 기술로는 내비게이션과 HUD(헤드업 디스플레이) 등이 있지만, HD 라이팅 시스템은 야간 주행 시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와의 커뮤니케이션 기능까지 고려한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양성운 기자

황현식, 제휴 매장 방문해 소상공인 응원

U+우리동네멤버십 프로그램

LG유플러스 황현식 대표가 25일 ‘U+우리동네멤버십-용산 한강대로편’ 제휴 매장을 방문해 상품을 구매하고 소상공인 사장님을 응원했다.

LG유플러스는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과 제휴를 맺고 자사 모바일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U+우리동네멤버십 프로그램을 오는 28일까지 운영한다. LG유플러스 용산사옥 인근 한강대로에 위치한 식당, 카페, 꽃집 등 31개 매장에 멤버십 고객이 방문하면 최대 80% 할인, 사이드 메뉴 무료 증정 등 혜택을 멤버십 앱 내 쿠폰 형태로 제공한다.

황현식 대표는 이날 ‘메이플라워’(꽃집)와 ‘몽브르378’(카페&베이커리)를 방문해 꽃바구니와 빵을 구매했다. 황



LG유플러스 황현식 대표가 25일 카페 몽브르 378에서 영락보린원 원아들에게 전달할 빵을 고르고 있다. /LG유플러스

대표가 구매한 상품은 용산구 소재 아동복지시설인 ‘영락보린원’에 기부될 예정이다.

카카오, 전국 100개 ‘우리동네 단골시장’

점포·시장 대표 특채널 지원

카카오의 ‘우리동네 단골시장’ 프로젝트가 전국 100개 시장으로 확대된다.

카카오가 카카오임팩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2023 우리동네 단골시장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우리동네 단골시장’은 소신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는 전국 상인들을 지원하는 ‘카카오 소신상인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전통시장 상인들이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해 단골손님을 만들고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우리동네 단골시장은 100개 시장을 대상으로 ‘점포 특채널 지원’과 ‘시장 대표 특채널 지원’ 두 가지 사업으로 운영된다.

‘점포 특채널 지원’은 전통시장 상인들이 카카오톡 채널로 손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디지털 튜터가 특채널 개설부터 온라인 고객 서비스 등 다양한 디지털 교육을 제공한다. 카카오는 올해 총 20개 시장을 모집해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장은 오는 6월 9일(금)까지 우리동네 단골시장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최빛나 기자 vitna@